

## 투데이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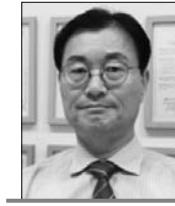
## 식품에서 '소비기한' 이란?

얼마 전 식품업체 대표들에 대한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보수교육을 받았다. 식품업체는 의무사항이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대리출석도 불가능이다.

HACCP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인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2006년 처음 시행될 때에는 6개 식품에만 적용되었으나 점차 늘어나 지금은 45개에 걸쳐 확대 시행되었으며, 지금은 전국의 식품업체에 3만여 곳 중 약 60%에 해당하는 18,600여 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개별 식품 중에는 약 90% 이상의 식품이 인증을 받았다. 식품의 포장 뒷면을 보면 'HACCP인증' 표시를 볼 수 있다.

2023년부터 예전에는 (식품의 판매 기능기한을 알려주는 영업



이 윤희  
파시코 대표

자 중심으로 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부분에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산폐하거나 품질의 저하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에서는 식량안보처원에서 자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베려지는 음식물 출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당, 국, 죽, 국물 등을 바탕으로 한 식문화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인식이 인식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부분을 제외한다면 예전에 비해 지금은 유통과정에서 냉장, 냉동 시설이 양호해지다보니 위생 안전을 우선시 하다보니 그런

예전은 물론 지금까지도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위생 안전을 우선시 하다보니 그런 인식이 인식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부분을 제외한다면 예전에 비해 지금은 유통과정에서 냉장, 냉동 시설이 양호해지다보니 위생 안전이 경과되어도 품질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멀어도 위생이나 안전상에 별 문제 없는 것

한다.  
연간 548만 톤에 달하는 식품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연간 1조900억원에 달하며, 유통, 보관 과정에서 포장도 채 뜯지 않고 버려지는 식품폐기량은 연간 1조5,400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처럼 막대한 경제손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 에너지절감,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식품순찰, 폐기률 줄여야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생면'의 경우 현재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인 10일의 60~70%정도로 설정된 유통기한을 80~90% 수준인 8~9일로 소비기한을 설정, 유통시키는 것이다. 소비기한 설정 실험 결과 품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12%

에서 최대 75%까지 현재의 유통기한보다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갈아타는 원년으로 식량안보 인식 제고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 사설

## 주택구입 부담지수 역대 최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 원리금 상환 정도를 나타내는 걸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한다.

이 수치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가장 큰 이유는 계속 오른 금리 때문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89.3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1년 4분기 83.5로 처음으로 80을 돌파했다.

이 수치는 2021년 4분기 83.5로 처음으로 80을 돌파했다.

그 뒤 즐끔 상승세를 보였는데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이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아파트 시세와 가계 소득, 주택담보 대출 금리 등을 토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수치로 환산

한 것이다.

가구 소득의 25%를 주담대 상환에 쓸 경우 이 수치는 100으로 산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3분기 전국 중위 주택 가격은 전분기보다 1.2% 하락하고 중위 가구소득

은 0.2% 상승하며 지수를 낮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전 분기 보다 18.6%나 상승하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14.6으로 2분기보다 10.6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이 134.6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 120.5, 인천 98.9 순이다.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다른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은 주택 담보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 지난해 3분기 60.6%로 3년 반 만에 6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주담대와 신용 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DSR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70%로 올라섰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올해도 경제가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갈수록 경제난 극복이 절실히지고 있다.

## 한국미래문화상 시상식

최근 전주시청 강당에서 제15회 JB한국미래문화상 시상식과 제33회 한국미래문화 출판기념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상은 전북은행이 후원하고 있다.

올해 문화상 문학 부문은 회원들이 창작 발표한 작품 중에서 35개의 심도 있는 삶사를 거쳤다. 김영진 시인이 쓴 '구이 저수지에서'가 선정됐다. 김 시인은 작품성·작가정신·문단에 대한 열정과 기여도,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행 등이 뛰어났다.

수상자인 '구이 저수지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자아는 물론 높음과 낮음, 명암과 흙의 미학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가 돋보였다. 문화부문은 대한민국 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번에는 한국예총 한국예술문화문화사(시낭송, 부문) 평인으로 인증 받은 유미숙 공연시낭송가가 받았다. 유미숙씨는 시낭송가, 연출전문가, 문화기획자로서 '공연시낭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인 것이 돋보였다. JB한국미래문화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타가 인정하는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독자제언

## '변종 보이스피싱' 자세히 숙지하자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교묘해지면서 '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법은 대면폐기 시험, 정부기관 사칭, 대출빙자, 자녀 납치 등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내용이다. 초기의 김미영 텔링 같은 스팸문자 시기와 비하면 많이 발전된 사례이다. 현재도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변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주소 변경을 요구하며 상담원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 전주매일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새해 축하하는 로즈 파레이드 참석자들



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제134회 로즈 파레이드가 열려 참석자들이 2023년을 축하하고 있다. 새해를 축하하는 로즈 파레이드는 패서디나에서 거울에도 정미가 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매년 1월 첫 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올해 파레이드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됐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